



또 옹고집과 옹진이 (3학년)

마음이음 | 유영소 글/ 이현정 그림



표지 탐색하기

<옹고집과 또 옹고집과 옹진이> 책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.

[책을 읽기 전에 생각해 보기]

1) 제목과 표지의 첫 느낌은 어떤가요?

⇒

2) 책의 제목과 연결 지어 생각할 때, 표지 그림에 있는 세 인물은 각각 누구 일까요?

⇒

3) 전에 '옹고집'에 대해 들었거나 읽은 적이 있나요? 있다면 어떤 이야기인가요?

⇒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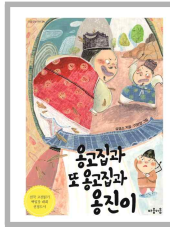
4) 돈이 많은 '부자' 중에서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써 보세요.

⇒

[책을 읽고 나서 생각해 보기]

5) 책의 뒷표지에 쓰여 있는 글은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. 가장 큰 글자로 쓰여 있는 문구 '가짜가 진짜가 되고, 진짜가 가짜가 되다!'를 다른 문구로 바꾼다면 뭐라고 쓸까요?

⇒



또 옹고집과 옹진이 (3학년)

마음이음 | 유영소 글/ 이현정 그림

*<옹고집과 또 옹고집과 옹진이>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.



어휘력 쑥쑥 키우기1

다음 [보기]는 <옹고집과 또 옹고집과 옹진이>에 나오는 낱말입니다.

[보기]

위세 상책 퇴락 보시 부아 공덕 식솔 인색 험살

위 [보기]의 낱말 중에서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진 것을 각각 찾아 쓰세요.

- (1) 공로와 덕행. ()
- (2) 한 집안에 딸린 식구. ()
- (3) 짓궂게 꾀방함. 또는 그런 짓. ()
- (4) 가장 좋은 꾀. ()
- (5) 분하거나 노여운 마음. ()
- (6) 자비심으로 재물을 베풀. ()
- (7) 무너지고 떨어짐. ()
- (8) 사람을 두렵게 하여 복종시키는 힘. ()
- (9) 재물을 아끼는 태도가 몹시 지나침. ()



또 옹고집과 옹진이 (3학년)

마음이음 | 유영소 글/ 이현정 그림

*<옹고집과 또 옹고집과 옹진이>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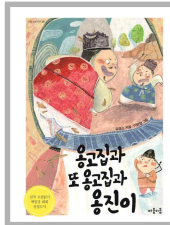
어휘력 쑥쑥 키우기2

다음 [보기]는 <옹고집과 또 옹고집과 옹진이>에 나오는 속담 또는 관용구입니다.

[보기]	빛 좋은 개살구	똥줄이 탔지
	울며 겨자먹기	풀방구리에 쥐 드나들듯

위 [보기]의 표현 중에서 내용의 흐름으로 보아 빈 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것을 각각 찾아 쓰세요.

- 1) 동무랑 뛰어노는 게 으뜸인 진이는 어느 때나 아무 데고 무시고 다니는 아홉 살배기. () 집 안팎을 오가는 진이를 볼 때마다 옹고집이 큰소리를 내며 야단쳤어.
- 2) 옹고집이 껍 소리를 지르며 담뱃대를 집어던지는데,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작은 눈이 새빨개졌어. 담담한 학 대사 옆에서 하인들만 (). 미치지 않고서야 옹고집 앞에서 저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!
- 3) "저놈을 당장 요절내라!" 옹고집의 불호령에 ()로 종들이 학 대사를 붙들어 꽁꽁 묶고 몽둥이질을 하는데, 할 수 없이 때린다지만 젊은 종들 힘을 어찌 당하누.
- 4) 이 어여쁜 집에서 웃음소리는 도통 안 들리고 만날 옹고집 호통뿐이니, 그야말로 ()라.



또 옹고집과 옹진이 (3학년)

마음이음 | 유영소 글/ 이현정 그림

*<옹고집과 또 옹고집과 옹진이>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.



독해력 짱짱맨 되기

<옹고집과 또 옹고집과 옹진이>의 내용 일부입니다.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.

바로 그때, 진짜 옹고집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니 구수한 고기 냄새가 콧구멍을 푹 찌르네. 성깔이 팍 뻥친 진짜 옹고집이 고래고래 소리쳤어.

“나도 없는 내 집에서 어떤 놈이 고기를 구워 처먹느냐?”

하며 난리를 치다 두 눈이 뚱그레지며 멍칫하거든.

“아니!”

초당에 곰방대를 끼고 누운 놈은 아무리 봐도 똑 저란 말이지. 진짜 옹고집은 눈을 비비고 또 비벼 다시 봤어. 그래도 틀림없어. 옹고집! 딱 저거든.

‘내가 낯술이 과했지. 술에 취해 헛것이 보이나 보다.’

진짜 옹고집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, 가짜 옹고집이 벌떡 일어나 팔팔 뛰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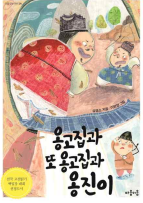
“네 이놈! 너는 대체 뭐 하는 놈이냐? 남의 집에 남의 모습을 하고 들어, 어디서 소리를 질러 대며 (㉠)냐? 당장 나가거라!”

1. 위 글의 내용을 정리하였을 때, 이야기의 구성요소에 맞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.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① 인물 - 가짜 옹고집, 진짜 옹고집 | ② 배경(장소) - 옹고집의 집 |
| ③ 배경(시간) - 이른 아침 | ④ 사건 - 두 옹고집이 만남 |

2. 밑줄 친 문장의 내용으로 보아 ㉠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.

⇒



또 옹고집과 옹진이 (3학년)

마음이음 | 유영소 글/ 이현정 그림

*<옹고집과 또 옹고집과 옹진이>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.



사고력 쑥쑥 키우기

1. <옹고집과 또 옹고집과 옹진이>에서 진짜 옹고집과 가짜 옹고집이 서로 자신이 진짜임을 주장하며 싸우던 중 큰아들, 부인, 큰딸, 며느리에게 각각 한 말을 비교하여 정리해 봅시다. 진짜 옹고집이 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‘진’, 가짜 옹고집이 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‘가’라고 쓰세요.

큰아들 에게	배 서방네 이자는 잘 받아 왔느냐? 스물 닷 냥 중에 아비는 스무 냥만 주고 닷 냥은 네 용돈 하거라. ⇒ ()	
부인에게	칠칠맞지 못한 마누라! 인두질 하나 제대로 못 해 바지를 홀랑 태워 먹 을 뻔했구먼. ⇒ ()	부인! 손이라도 데었으면 어찌할 뻔 했소. 바지에 불똥 좀 떨어지면 어떻 소? 임자가 아니 다쳤으면 되었지. ⇒ ()
큰딸에게	아이고, 재수가 없으려니 딸년한테 절까지 하는구나! 빨랑 찾아내라. ⇒ ()	그래, 네가 새치 뽑을 때마다 아비 흉터가 아플까 봐 조심조심 다룬 것 을 내 알지. ⇒ ()
며느리 에게	너희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백자를 꼭 넣어 오라 하지 않았느냐? ⇒ ()	너 시집을 때 말 열세 필에 혼수품 을 바리바리 싣고 오느라 얼마나 고 생이 많았느냐? ⇒ ()

2. 가짜 옹고집이 한 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?

⇒



또 옹고집과 옹진이 (3학년)

마음이음 | 유영소 글/ 이현정 그림

* <옹고집과 또 옹고집과 옹진이>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.



창의력/사고력 쑥쑥 키우기

<옹고집과 또 옹고집과 옹진이>의 내용 일부입니다.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.

“사실은 제가 좀 아둔하여 그 많은 전답이며 소출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, 저놈은 어디서 저런 것들을 다 알아내어 청산유수로 고하는 줄 모르겠습니다. 저놈이 제 재산을 다 빼앗으려는 도적놈이 틀림없습니다. 아휴, 참말 답답한데 제가 진짜 옹가란 말입니다.” 하며 제 가슴을 치거든. 사또가 노려보다 다시 물었어.

“하면 네가 진짜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?”

진짜 옹고집이 가슴을 치며 대답하는데, (㉠)

하며 팔딱팔딱 뛰거든. “집어치워라!” 사또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.

“더 들을 것도 없다. 바로 네놈이 가짜다!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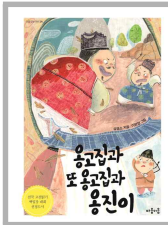
1. 사또의 반응으로 보아 빈칸 ㉠에 들어갈 진짜 옹고집의 대답은 어땠을까요?

- ① 옹고집의 조상과 집안 살림살이를 속속들이 읊었다.
- ② 옹고집의 조상이나 집안 살림살이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.
- ③ 옹고집의 조상이나 집안 살림살이를 거짓으로 꾸며 말했다.

2. 1) 만약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이 진짜라고 우길 때, 나는 우리 조상과 우리 집의 살림살이를 모두 정확히 말할 수 있나요? (있다, 없다)

2) ‘조상과 집안 살림살이를 정확히 꿰고 있는지’를 기준으로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? (있다, 없다)

3) 그렇다면 위 글에서 사또의 판결 근거는 어떤가요? (충분하다, 충분하지 않다)



또 옹고집과 옹진이 (3학년)

마음이음 | 유영소 글/ 이현정 그림

*<옹고집과 또 옹고집과 옹진이>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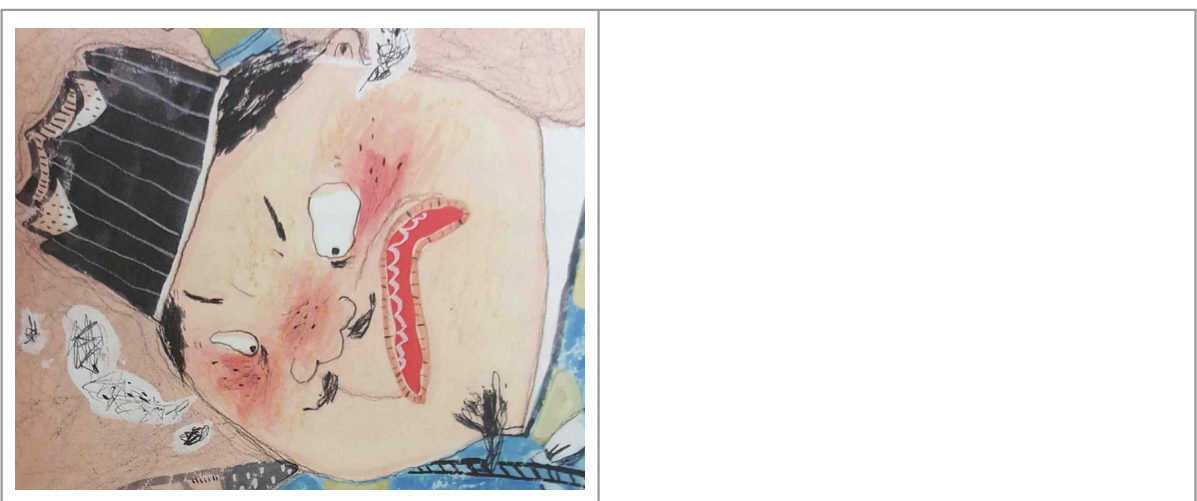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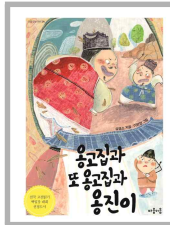
표현력 쑥쑥 키우기

<옹고집과 또 옹고집과 옹진이>에서 학 대사가 옹고집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.

“주인어른의 관상을 보자 하니 ㉠두 눈썹이 길고 사이가 넓은 것이 재물 복이 있습니다. 우선은 먹고, 쓰고, 큰소리치며 살 만하시겠습니다. 하나 ㉡폭 꺼진 이마가 매우 웅색하고 ㉢면상까지 비좁은 것이 머리가 나빠서 남의 말이라고는 들을 줄 모르는 고집불통이겠습니다. ㉣튀어나온 턱 밑으로 난 오종종한 수염은 급한 성깔에 몸쓸 심술보가 엿보이고, ㉤바늘귀만한 작은 눈은 물불 가릴 줄 모르는 욕심 통에 도대체 인정머리라고는 씨알만큼도 없겠습니다.”

책에 그려진 옹고집의 모습(아래 왼쪽 그림)과 학 대사의 묘사(㉠~㉤)를 비교해 보고, 다른 부분을 학 대사의 묘사대로 고쳐 빈칸(아래 오른쪽)에 다시 그려 봅시다.





또 옹고집과 옹진이 (3학년)

마음이음 | 유영소 글/ 이현정 그림

*<옹고집과 또 옹고집과 옹진이>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.



창의력 쑥쑥 키우기

다음은 <옹고집과 또 옹고집과 옹진이>를 쓴 작가의 말 일부입니다.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.

(가) 억지만 부리는 심술쟁이에 남을 해코지하는 못된 욕심꾸러기 옹고집 이야기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요? 아마도 재미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. 옹고집이 그 나쁜 성질 때문에 벌이는 일이나 겪는 사건들이 어떻게 될지 너무도 궁금하지 않았을까요? ㉠장단을 맞추는 말 재미도 쿵덕쿵덕 신이 났고요.

(나) 원래의 이야기는 그대로 가져왔지만 사건을 좀 덜어 내기도 하고, 감정을 더 끌어내기도 하고, ㉡원래 『옹고집전』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‘옹진이’라는 인물을 새로 만들면서 옹고집 이야기를 요리조리 굴러 보는 글쓰기가 참 재미있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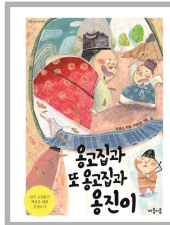
1. 이 책을 읽으면서 ㉠과 같은 흥을 느낀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. 가장 장단 맞추는 재미가 느껴졌던 곳을 두 군데 골라서 옮겨 적어 보세요.

①

②

2. ㉡에서 작가는 ‘옹진이’라는 인물이 원래 ‘옹고집전’에 없었고, 새로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 나라면 어떤 인물을 새로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고, 그 이유를 써 봅시다.

⇒



또 옹고집과 옹진이 (3학년)

마음이음 | 유영소 글/ 이현정 그림

* <옹고집과 또 옹고집과 옹진이>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.



사고력/문장력 쑥쑥 키우기

<옹고집과 또 옹고집과 옹진이>의 내용 일부입니다.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.

(가) 학 대사가 혀를 차며 “쫓쫓쫓! 어리석도다. ㉠참된 재복은 가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. 베풀 것이 많으니 나누고 또 나누어 함께 살고자 하는 것! 그 하늘의 뜻을 실천할 기회를 지닌 것이 바로 재복인 것을…….”

하며 이르는데, 옹고집이 고개를 끄덕였어. 그 말이 참말 옳은 거라.

(나) “어허! 내가 누구요? 천하에 둘도 없는 왕고집 옹고집이라! 이전에는 온갖 못된 짓에 욕심과 심술로 고집을 피웠다면, 이제부터는 ㉡나누고 보살피는 착한 고집을 피울 것이오. 피워도 엄청 피워서 이웃들을 톡톡히 도울 것이오. 알겠소, 임자?” 부인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는데, 진이가 헤헤 웃었어.

1. 사람들은 보통 ‘재복’이 있다고 하면, 노력하지 않고도 운 좋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. 위 글 (가)를 통해 ㉠의 의미를 새겨 봅시다.

참된 재복	⇒
-------	---

2.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㉡처럼 하는 사람을 찾아봅시다.

누구인가요? ⇒	어떤 착한 고집을 피웠나요? ⇒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